

역사속으로

우리민족의 '근대인쇄' 시기를 따지자면 해방 이후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해방

이전에는 근대식 인쇄가 별로 없었고 그나마 일제가 운영하던 인쇄소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해방 이후의 인쇄역사 기록을 찾으면 1954년에 창간되어 오늘날까지 발행되고 있는 인쇄신문이 유일하다. 이에 본지에서는 지난 역사를 더듬어 보는 의미에서 1950년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인쇄역사를 월별로 정리해 시리즈로 보도한다. 이번 호에는 1954년 이후 매년 8월에 보도되었거나 광고에 게재되었던 내용을 소개한다. <편집자주>

재검토 되어야 할 노사관계

1957년 8월8일자 인쇄문화시보(제54호)는 민중서관에서 발생한 노동쟁의를 계기로 노사관계가 재검토 되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밝히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민중서관이 인쇄국에 근무하던 종업원 10명을 잔업지시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집단 해고시킨 사건에 대해 해고당한 종업원들이 직장노동조합 결성을 방해하기 위하여 노조결성을 추진하고 있던 주동인물을 모조리 해고시킨 것이라고 주장한 데에 따른다.

이와 관련 인쇄시보는 사건의 경위를 "5월18일의 정시작업이 끝난 후 회사측에서 종업원들에게 잔업을 지시하였는데 문선공 최오복씨 외 11명의 종업원들이 밀린 노비를 지불해 주지 않는 한 잔업할 수 없다고 잔업지시를 거부하고 집으로 돌아갔으며 이에 회사측은 잔업지시에 복종치 않으므로 이들 12명의 종업원들을 전원 해고시켰다"라고 전하고 있다.

한편, 해고당한 종업원 측은 5월17일에 노조결성을 정식으로 보고하니까 노조결성을 방해하기 위하여 그 주동인물을 해고시킨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잔여종업원들과 결속하여 지난 6월3일 비밀리에 조직의 모체를 결성하기에 이르렀으며 6월12일에 노조결성대회를 소집하고 정식으로 직장노조를 결성하였다고 한다. 이에 반해 회사측은 잔업을 거부하는 종업원들을 그대로 두어야 하느냐고 반문하면서 우리는 태업하기 때문에 해고시킨 것이지 노조결성을 방해한 것은 아니며 노조를 결성한다는 말은 들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 때 해직시킨 12명중 2명은 복직시켰고 나머지 종업원들도 회사의 일이 많으면 복직시킬 계획이라며 맞서고 있다고 인쇄시보는 전했다.

시험대에 다시 오른 국산 인쇄잉크?

1950년대 후반에서 1960년대까지는 외국산 인쇄잉크에 비해 열등한 품질로 불만을 야기하고 있는 국산 인쇄잉크를 보완하기 위한 외국산 인쇄잉크의 수입에 대한 논란이 뜨거웠다.

인쇄문화시보 1958년 8월7일자(제77호)는 "인쇄잉크의 질이 날이 갈수록 저하되고 있을 뿐 아니라 값이 너무 비싸다"고 국산 잉크를 극구 비난하여 오던 인쇄업계에서 "제한적이라도 외국제 인쇄잉크를 수입하는 길이 모색되어야한다"고 논의되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전반적인 수입금지 해제론도 대두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인쇄시보는 "국산인쇄잉크가 외국제에 손색없을 만치 품질이 좋아졌다하여 수년 전에 상공부와 인쇄업자, 인쇄잉크제조업체들의 합의 하에 외국제인쇄잉크의 수입을 금지, 현재도 금속인쇄잉크, 그라비아인쇄잉크 등 특수인쇄잉크를 제외한 일반인쇄잉크의 수입이 금지되고 있다. 그러나 수입금지 조치 후 수년이 지난 지금 국산잉크가 외국제에 비해 나날이 품질저하를 가져온 탓인지 품질이 하도 나쁘기 때문에 인쇄효과를 제대로 낼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상당량의 외국산 잉크가 밀수입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각광받을 인쇄산업

국내산업이 번창하기 시작하던 1960년대 중반부터 수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했으며 인쇄업계도 수출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이와 관련 인쇄문화시보는 1964년 8월25일자(제210호)를 통해 국내일부 활판인쇄업의 수출산업으로의 전환계획은 기묘한 바 있거니와 지난 7월15일자로 상공부가 고시1336호로 수출산업 전환에 따른 시행자료 제출 및 신청요령을 공표하자 인쇄업계의 13개 유수업체가 수출산업으로의 전환을 신청하였다고 보도하고 있다.

수출전환희망기업 △동아출판사(주) △삼화인쇄(주) △대한교과서(주) △광명인쇄공사 △홍원상사(주) △삼성인쇄(주) △동아지기인쇄공업(주) △평화당인쇄(주) △보진재인쇄소 △(주)민중서관 △합자회사청구출판사 △경북인쇄소 △영광인쇄(주)

사진식자기 국산화에 성공

1970년대에 들어서며 외국업체에 의존이 심했던 인쇄관련 기자재에 대한 국산화가 속속들이 성공했다.

인쇄문화시보는 1971년 8월1일자(제438호)를 통해 오랫동안 사진식자기의 국내개발을 추진해오던 한글광학전자화연연구소(소장 장봉선)에서는 오랜 연구와 노력 끝에 국산화에 성공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인쇄시보는 "한글광학전자화연연구소 장봉선 소장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사진식자기의 국내개발로 막대한 외화를 절약하여 국내 경제발전에 기여할 목적 하에 71년 2월에 김포공항근처에 대지 500평에 건평 100평에 이르는 공장을 확보하고 과학기술처에 한글광학전자화연연구소를 정식등록, 발족시킴으로써 사진식자기의 국산화계획이 본격적으로 추진케 됐으며 이번에 국산화에 성공하게 된 것이다"라고 전하고 있다.

서울시, 무허가공해업소 정비방침

인쇄업계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로 환경문제가 지금부터 30여

년 전부터 대두되고 있음을 인쇄문화시보가 증언하고 있다.

인쇄문화시보는 1975년 8월1일자(제523호)를 통해 "서울특별시는 공해방지법제4조에 의한 배출시설(인쇄업은 주로 소음) 설치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공해업소에 대한 자진정리기간(75년 12월31일까지)을 설정, 이 기간 안에 정리하지 않는 업체는 의법조치 할 방침이다"라고 보도했다.

인쇄시보는 이 기사에서 "무허가공해업소에 대한 유형과 정리 방안은 첫째 도시계획법상 용도지역과 건축법상 건물용 용도가 적합한 업소에 대한 정리방침은 허가이며 정리기간은 75년 10월31일까지다. 둘째 도시계획법상 용도지역은 부적합하나 건축법상 건물용도가 적합한 용도에 업소에 대한 정리방침은 76년 12월31일까지 기한부 허가이며 75년 9월30일까지 허가신청을 하지 않는 업소는 고발토록 하고 있다. 셋째 도시계획법상 용도지역은 적합하나 건축법 상 건물용도가 부적합한 용도 및 도시계획법 상 용도지역과 건축법상 건물용도가 부적합한 업소에 대한 정리방침은 자진폐업권고이며 정리기간은 75년 12월31일이고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구청장과 협조하여 위법건물조치도 병행할 방침"이라고 전하고 있다.

제1회 국제인쇄기재전 개막

지난달 9일부터 13일까지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태평양홀에서 개최된 제14회 국제인쇄산업전이 지금으로부터 26년 전인 1978년에 처음으로 개최됐다.

이와 관련해 인쇄문화시보는 1978년 8월1일자(제590호)를 통해 그동안 인쇄업계뿐만 아니라 관련업계와 출판회사들의 비상한 관심 속에 준비되고 있던 제1회 한국인쇄기기 및 재료전시회가 오늘 뜻깊은 막을 올린다고 보도하고 있다. 제1회 전시회는 6일간 서울 여의도 소재 기계공업진흥회 전시관에서 개최되며 국내 인쇄인들과 관련인사들에게 기업경영상의 좋은 정보를 제공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인쇄시보는 밝혔다.

〈조갑준 차장〉